

홈 > 뉴스 > 교육 > 대학·초중고

전주대 '국역 추안급국안' 10년 결실 이뤘다

조선후기 정치·범죄사회사 관찰한 소중한 자료... 90권으로 번역 출간

[0호] 2014년 09월 28일 (일) 19:11:34

고민형 기자 ✉ gom21004@sjbnews.com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가 조선 후기 정치·범죄사회사를 관찰할 수 있는 '추안급국안' 90권을 출판하면서 국내 역사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고전학연구소는 지난 26일 전주대에서 2004년 처음 번역을 시작한 이후 10년 만에 '추안급국안'을 완역한 '국역 추안급국안' 전 90권을 간행한 것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번역사업은 2004년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에서 공모한 '기초학문육성 인문사회분야'의 지원 과제로 수행된 것으로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번역과제 중에서는 가장 방대한 성과물이다.

'추안급국안'은 선조 34년(1601)부터 고종 29년(1892)까지 약 300년 동안 변란과 역모, 천주교, 왕릉 방화 등에 관련된 중죄인들을 체포·심문한 기록이다.

심문 대상자는 양반 관료와 궁녀, 상인, 농민, 노비 등이 망라돼 있으며, 당시의 사회적 모순과 갈등이 적나라하게 묘사돼 있다.

이에 ‘추안급국안’은 당대인들의 사회적 행동양식 및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복원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추안급국안’은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등 다른 역사서에서 요약·압축된 사건이나 내용들을 심문과 진술 형태인 대화체로 가감 없이 자세히 수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사건 이면에 존재하는 실체적 진실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인간관계, 특히 베일에 싸여 있던 궁중 내부의 갈등은 조선 후기 역사적 사건의 속살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해 준다.

‘추안급국안’을 바탕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조선 후기 역사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역사학계는 내다봤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 기록인 ‘추안급국안’은 국왕에 대한 역모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이에 준하는 각종의 변란이나 당쟁, 정변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

따라서 이 문헌에는 서학 즉 천주교 사건이나 각종의 비결류 사건들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조선 후기 사회를 뒤흔들던 큰 사건들이 모두 모여져 있는 기록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변주승 교수는 “‘국역 추안급국안’의 번역 분량은 원문 글자수 약 672만6,000여자로 영인본 30권 분량”이라면서 “번역문은 200자 원고지 15만 매의 규모로, 고전번역의 단일 사업으로는 최고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번역에는 정치·경제·사회·사상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변주승(연구책임자, 전주대) 교수와 김우철(한중대), 조윤선(한국고전번역원), 이상식(고려대), 이향배(충남대), 이선아(전북대), 허부문(서강대), 오항녕·서종태·문용식(전주대) 등 전문 번역자와 전주대 사학과 대학원의 연구보조원 등 약 3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해 3년 동안의 집중 번역과 7년에 걸친 윤문 및 교열 과정을 거쳐 10년 만에 총 90권으로 출간된 것이다.

/고민형 기자

© 새전북신문(<http://www.sjb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